사람들은 누구나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을 나눈다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커질까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오늘날도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기도를 나누는 삶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엡6:18) 말씀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 유업을 받고 나누고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 기쁨, 행복 등은 주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가져오고 그 축복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넘치는 은혜가 됩니다.

2. 주님께 받은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눌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받은 사랑과 믿음을 형제나 이웃에게 전하고 슬픔을 당한 이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붙들어 줄 때, 큰 구원의 역사는 임합니다. 또 내가 도움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찾아서 나눌 때, 내가 가진 믿음과 사랑은 배가 되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라시는 부요한 분이십니다. 움켜쥐는 땅의 부요함이 아니라 손을 펴 나누는 천국의 부요함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가족들 되기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는 한해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눔으로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

설날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교회
담임목사 김정수
36663 경북 안동시 관청골길 67(옥동)
www.dowonch.com

인도자: 가족 중

설명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기 원 ——— 인 도 자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들의 영과 육에 건강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자,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64장 (통일찬송가 13장) ——— 다 같 이

성경말씀 ——— 누가복음 6:38 ——— 인 도 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설 교 ——— 나눔으로 채워지는 축복 ——— 맡 은 이

기 도 ——— 맡 은 이

나눔시간 ——— 맡 은 이

① 가족별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감사한 것)
②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의 계획

찬 송 ——— 430장 (통일찬송가 456장) ——— 다 같 이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4장(통13) "기뻐하며 경배하세"**

1.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2.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3.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4. 새벽별의 노래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 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송가 430장(통456) "주와 같이 길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